

정글(Jungle)선교 이야기

오 정 면 (장로, 경북 상주 봉강교회)

1987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시-농촌선교회(Urban Rural Mission) 회의가 있었다.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오세아니아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특히 그들의 가난에 주목하였다. 그 해 겨울, 나는 내자(內子)와 함께 길을 나섰다. 태국으로부터 우리는 비행기, 기차, 버스, 배 등을 이용하였고 그도 안되면 며칠씩 걸어서 다녔다. 그 결과 우리는 보르네오의 정글 속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74만km²)이며, 바로 적도 밑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 50여 소수 민족들이 밀림 속에서 화전을 일구며 수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섬은 1964년 영국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왕국으로 나뉘어졌고, 나라의 의도적인 개발 회피로 소수민족들은 수렵과 화전 등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족(일부 피난족)은 아직까지도 농사 없이 살아가고 있다.

원주민들은 주로 기다란 집(long house)을 짓고 사는데 20~100가구 정도가 모여 산다. 그들의 생활은 문명 세계에서 볼

때는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전기도 전화도 없는 마을에 원두막 같이 아무렇게나 엮어 지은 집에서도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생활 경쟁도, 빈부의 차도 없다. 교역자도 사례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해도 화전을 일구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은 거의가 회교국이어서 선교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소수의 기독교와 카톨릭 교인이 있으나 산 속의 소수 민족들은 주로 정령 숭배를 하고 있다. 나라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종족마다 말이 다르고 넓은 정글 여기 저기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다.

정글 속에는 선교사가 찾아오는 일이 없다고 한다. 목사도 전도사도 없는 교회, 교회도 없는 마을,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해마다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반 족의 Long House, 한지붕 밑에 20~100가구가 살고 있다.

13년을 한 해도 빠짐없이 다녔지만 50여 종족 중 30여 종족밖에 찾지 못했다.

정글 속에 사는 종족들은 위생이 형편없이 나쁘고 영양이 부족하며, 가족계획이 없어 보통 12~13세에 결혼하여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 게다가 마약의 일종인 셰리(Sheri)라는 덩굴 나무잎(Kokas나무 일종이라 함)을 씹는데 이것을 씹으면 입에 피를 머금은 것 같고 이가 새까맣게 썩게 된다. 심지어 이가 없는 마을(Angalo)도 있었다. 이 코카인 중독 때문에 그들은 그냥 놀고 지낸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 마약 퇴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온 마을이 마약환자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나는 농민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 후 이듬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개월 간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준비물을 보면 T셔츠 100장(Jesus Mengasihi Kau-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지침, 땀수건, 기초약품 등 100여 만원 어치를 가져가



문달남 권사가 SEKAPAN족에게 뜬을 떠주고 있다.

고 현금으로 4,5천 달러를 가져간다. 한 곳에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T-셔츠를 선물하고 아픈 이들에게 기도해주면서 기본적인 약품을 주기도하며 뜯을 때 주기도 한다. 그리고 수년간 단 한 푼의 사례도 받지 못한 교역자가 허다하고 교회의 형편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교역자에게 얼마간의 생활비와 교회의 형편에 도움이 되도록 얼마간의 현금을 한다. 여기서 나는 지난 13년 동안 다닌 수 없이 많은 지역 중 몇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봄봉 사투(Bombong Satu)마을

사바(Sabah) 수도 코타키나 baru(Kotakina baru, KK)에서 버스로 4시간을 가면 코타마루두(Kotamarudu)라는 소읍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다시 소형버스로 1시간 반을 가면 단덕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여기서는 무작정 기다리다가 보면 부정기적으로 소형 트럭이 오는데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다. 이 차로 약 3시



원주민의 대나무 집

간을 가면 삼파리타(Samparita)라는 마을에 도착되고 해가 진다. 이 마을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걸어서 두 시간을 가면 마침내 봄봉 사투라는 마을에 도착이 된다. 이 마을은 대나무 집 마을이다. 벽도 바닥도 대나무를 쪼개서 붙였기 때문에 벌렁벌렁할 뿐 아니라 잘못 밟아 발이 허공에 빠지면 정갱이가 다 벗겨질 수도 있다. 그들은 집은 있으나 방이 없고 대가족이 한 방에서 지내다가 잘 때는 이 구석 저 구석에 흩어져 잔다. 그들의 생활집기는 플라스틱 쟁반 몇 개, 컵 몇 개, 찌그러진 솔한 개가 고작이다. 짐승을 방목하고 있어 위생 수준도 심각한 형편이다.

피난족(Penan)마을

피난족은 사라와크(Sarawak)주 구농 물루(gunung Mulu)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종족으로 그 생활 방식이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옷을 입고 긴 집에 모여 살며 몇 년 전부터는 화전 농업도 하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이산 저산을 옮겨 다니며 나무 위에서 자고 또 열매와 수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모여 사는 피난족도 주식은 세고야자 나무와 산짐승 고기와 정글 채소이다. 이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교회도 있다. 이동 피난족은 한 가족 또는 두세 가족이 모여 짐승의 이동에 따라 정처없이 다니며 산다. 긴 집에 살다가도 본성이 발작하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깊은 정글로 들어가 버린다. 그들이 살다간 흔적을 보면 나무 몇 대 베어 절고 앞을 깔아 놓은 게 고작이다.

그 정글 안에는 나무 거머리가 우글거린다. 처음에는 2cm도 채 안 되는 것이 피를 빨면 뺨 만큼 커져서 손가락 크기가 된다. 통증이 없어 붙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당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피난족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산다고 한다. 피를 많이 빨 거머리는 10cm가 넘으며 흥칙하여 눈으로 보고 뺨 수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물 속의 거머리는 30cm정도 크기인데 물소에

붙으면 물소도 쓰러진다고 한다. 피난족들은 벌목이 계속되면서 정글이 파괴되고 그들의 주식인 산짐승이 사라져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마지막 남은 보르네오 정글이 파괴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벌라가 초등신학교 (Belaga STP)

‘벌라가’라는 곳은 매우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도시다. 이곳을 찾아가려면 우선 사바의 수도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50분을 날아 미리(Miri)라는 도시에 내리는데 거기서 1박을 해야한다. 아니면 KK에서 약 두 시간의 항공로로 시부(Sibu)라는 도시에 내려 1박한 후 이튿날 8시경에 배를 타고 하루를 가면 카피트(Kapit)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하며 여기가 종점이다. 1박하고 그 이튿날 다시 쾌속선을 타고 오후 4시경에 벌라가에 도착하는데 뱃길이 말로 할 수 없이 험악하다. 강 가운데 바위섬이 많아 배가 곡예 운항을 하는데다가 급류가 많아 아찔아찔할 때가 많다. 빈톨루라는 곳에서 벌라가까지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1회씩 있기는 하나 결행이 잦아 기대할 수가 없다.

STP는 Sekolah Theorogy Pertama의 약자로 초등신학교라는 뜻이다. 이 학교는 SIB(Sidang Ingil Borneo-보르네오 복음주의 교단)의 학교로 3년을 졸업하면 STA(Atas)고등신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3년을 마치면 전도사가 된다. 그 후 3년을 지내면 목사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1.5배가 넘는 큰 지역에 초등신학교는 이 곳이 유일하고, 고등신학교는 미리와 라와스(Lawas)에 한 학교씩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케냐족(Kenya) 세카관족(Sekapan) 피난족(Penan) 푸난족(Punan) 이반족(Iban) 등 다양한 종족들이고 부부학생도 있다. 학생들은 너무나 먼 거리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버스, 배 등을 이용하여 2,3일씩을 와야 하므로 등록금보다 교통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까닭에 방학 때 집에 갔다가 교통비가 없어 못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중 ‘알로이시우스’라는 청

년은 14일을 걸어와서 공부를 마치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으려는 참에 어느 중국인 감리교인의 소개로 이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학교 건물은 낡은 2층 건물이고 선생은 세 분, 학생은 9명이었다. 그 날 밤이 이속하도록 선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 학교는 이 지역의 교인들의 연보로 운영되며 연보가 안 들어와 곧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원주민들의 신앙 지도는 물론 전도의 길이 막혀 버린다는 사실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체조를 하는데 어떤 부인 셋이 와서 나를 좀 보자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분들은 선생들의 사모님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나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였다. 7개월 짜 월급 한 푼 못 받아 어린 자식들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호소였다. 나는 그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주었다. 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7년 간 그 학교를 약소하나마 돕고 있다. 매년 전학생에게 전학년 장학금을 주고(한화 약 5만원) 선생님들에게는 한달 월급조로 일인당 300 링깃(한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학교의 도서실에는 책이 100권이 못되어 매년 1,000 링깃(한화 32만원)을 주고 있다.

지난 98년도에는 교감 이벤(Iben)목사를, 99년도에는 교장 아니(Any)목사를 초청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교 등을 한 달간 두루 견학시켜 보냈다. 그리고 컴퓨터 1대, 예취기 1대, 기계톱 1대, 모타 보트 1척을 기증하였다. 배가 없으면 1km도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99년도에 가보니 학생이 18명으로 늘었고 선생도 4명으로 늘었다. 선생들은 학생들과 함께 화전을 일구어 농사지어 식량을 충당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눈물겨운 정경이다.

이 학교의 운영은 선생들 급료와 학교 운영비,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까지 연간 한화 600만원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 학교를 돕는 것이 선교사 10명을 파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산속 소수 민족들은 종족마다 언어가 달라 선교사로서는 선교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기 종족을 자기들이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최상의 선교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가난한 농민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도울 독지가를 찾아 기도하는 중이다.

텐테나(Tentena) 마을

코타키나 바루(KK)에서 버스로 8시간을 가면 울루두순(Uludusun)에 당도하고 거기서 1박 후 다시 버스로 6시간을 가면 타와(Tawaw)라는 동말레이시아 동쪽 끝에 도착한다. 다시 1박하고 배로 6시간을 가면 인도네시아 타라칸(Tarakan)이라는 도시에 도착한다. 여기서 티타스(Titas)호라는 4000명이 타는 아주 큰 배를 타고 3일 2야를 가면 판톨로안(Pantoloan)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하는데 이 섬은 뉴기니아 바로 앞에 있고 티모르(Timor)라는 분쟁 섬의 바로 위에 있는 셀라웨시(Selawesi)이다. 여기서 1박하고 다시 버스로 10여 시간을 가면 텐테나(Tentena)에 도착한다. 외국인으로서의 우리가 처음 간 곳이고 죽을 작정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인 20명이 채 못되었다.

이날이 1999년 12월 31일이었다. 그 날 밤 11시에 제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설교를 하였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였는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예배였다. 기도와 찬송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고, 설교는 30여 분 뿐이었다. 새벽 3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지루한 줄을 몰랐다. 그저 간절한 기도와 찬송 그것뿐이었다. 2000년 1월 1일에 공식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찬식도 있었는데 역시 내가 설교를 하였다. 예배는 너무나도 간절하였고 2시간이 촌각에 지나갔다. 이날 예배에 나와 내자, 펠릭스(Felix)목사 세 명이 합창으로 405장을 찬송하였다. 1절은 인도네시아어로 2절은 영어로 끝 절은 한국어로 하였는데 너무나 은혜가 깊어 다시 한 곡을 요청받았다. 나와

내자는 찬송 221장을, 1절은 영어로 끝 절은 우리말로 불렀는데 얼마나 사모하였든지(찬송 내용은 모르면서도) 목마른 사슴 바로 그것이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이 물었다. 대관절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기에 그렇게 깊은 은혜를 주느냐고 말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라고.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심방을 갔는데 트럭을 타고 두 시간 여를 달려 메코(Meko)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다. 이 길은 벌목 수송을 위한 간이 도로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스콜이 지나간 뒤에는 차가 몇 번이고 전진, 후진을 거듭하는 천신만고를 겪고서야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노인, 청년, 처녀 등 10여 명이였다.

오후 4시에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시간이 흐르는지 가는지 전혀 몰랐다. 역시 기도, 찬송, 기도 찬송의 연속이었고 목사 설교는 20분이 안되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하다 못해 애절하였고, 애절하다 못해 처절하였다. 석유 램프에 기름을 두 번을 치고 그 기름이 다 할 때까지였다. 나는 50여 년 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런 경험은 거기서 처음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시끄럽지 않았다. 조용조용 들릴락 말락 하였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간절하였다. 나는 중간 중간 눈을 뜨고 이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들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허공을 휘저으며 그렇게 기도하였다. 찬송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면서도 간절한 찬송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중간 중간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약품을 나누어 주며 교회로 돌아오니 날이 새고 있었다.

목사의 세간은 다 찌그러진 솔 한 개, 뚜껑 없는 주전자 하나, 구멍 뚫린 컵 한 개가 전부였다. 목사의 생활비는 10만 루피아(한화 7만원) 생활비를 받아본 지가 까마득하다고 했다. 나는 5개월 치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다. 며칠 후 얼마를 걸어 산골 장날에 장터에 가서 솔, 주전자, 컵을 사서 목사님에게

주었다. 기가 막히는 가난이었다. 5일간을 심방과 전도로 보내고 다시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뽀소(Poso)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나는 또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뽀소(Poso) 마을

지난 1998년도 성탄절에 회교도들의 만행이 있었다. 그 날 뽀소 시내의 교인들은 모두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회교도들이 몰려다니면서 교인들의 집에 불을 질러 53가구가 흔적도 없이 불타 버렸다. 그리고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달려들었다.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떨고 있었지만 100여명의 성도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처절하게 대항하여 약 1주일 을 버티다가 결국 식량이 떨어져 정글 속으로 숨었다. 20여 일 을 정글 과일과 풀로 연명을 하다가 내려왔다. 그들은 그들 특유의 그 처절한 기도로 버티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회교도들은 교회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문짝을 뜯어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 왔으나 들어갈 집이 없었다.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였고 재기의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들의 불탄 집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분들은 새집을 지어 들어가 살고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짓고 있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역시 가난한 분들이었다. 잿더미 위에 거적을 치고 맨땅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한국의 순교사를 알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선조 순조때의 기해사옥(己亥邪獄)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도리어 그 순교의 피로 인해 한국교회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도리어 위로해 주었다. 눈물겨운 일이었다. 나는 그들을 도울 재력이 없어 그저 애타게 기도할 뿐이었지만 그들 역시 구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범하였고 전적으

로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그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욱 많은 것을 배웠다.

회교도들은 무법자이다. 회교 국가의 법은 코란이 최고의 법이다.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알라를 위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합법이고 도리어 상을 받는 그런 나라이다. 산 속 원주민들은 회교도들의 횡포에 전전긍긍이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회교로 개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징역을 받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기독교도는 늘어가고 있다.

멀고도 험한 지리적 여건과 말로 할 수 없는 불편한 교통, 공직자들의 썩어 문드러진 처사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여행을 해야만 했다.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은 (특히 수라바야지역) 가시밭길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눈물로 간청하였다.

심장병 어린이 캐서린(Kathrin)

테루피드(Terupid)라는 작은 도시에서 약 한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내려 2시간 여(약 12km)를 걸어서 들어가면 코풀란(Kopulan)이란 작은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가난하기로 소문난 마을인데 지난 겨울 처음으로 찾아갔다. 그들의 가정집 기들은 너무도 간소하였다. 교인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중에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마을도 외국인의 방문은 생전 처음이라며 반겨하였다. 거기에 피골이 상접하고 안색이 회색인 죽음 직전의 어린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의 차례가 되었는데 안내자의 말이 이 아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내년에 죽는다는 것이다. 뼈만 남은 11살 여아의 이름은 캐서린이었다. 나는 그에게 줄 약이 없었다. 약으로 될 병도 아니었다. 나는 어린이를 껴안고 인도네시아 교인들처럼 처절한 기도를 하였을 뿐 다른 대책이 없었다. 지난 2월 그름

게 귀국하여 곧 바로 병원을 수소문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 심장병 상담실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단숨에 달려가 이 어린 생명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다. 3,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의 크나큰 배려로 1/3만 내기로 하고 바로 KK에 있는 한국 선교사에게 연락하여 여권을 내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정글족들은 대부분 호적이 없는데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원의 추천서를 받아 호적을 하고, 여권을 만들어 지난 4월 19일에 입국하였다. 세종병원의 구급차가 김포공항에 대기하여 도착과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제반 수술을 마치고 종합검진을 하였다. 의사들의 말이 수술이 2년이 늦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해 보자며 4월 27일 수술에 들어갔다. 아침 8시에 들어가 오후 3시에 나왔다. 피를 말리는 8시간이었다.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살리려고 데리고 온 생명을 죽여서 보낼 수는 없다고 기도하였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승모판막이 망가져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재수술을 5월 4일에 하게 되었다. 승모판막은 완벽하게 재생되었는데 다른 곳의 봉합이 잘못되어 피가 샐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모두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차 수술비가 2,100만원이 나왔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아셨다. 또 다시 병원의 배려로 약간의 돈만 더 내게 되었다. 캐서린은 빨리 회복되었다. 5월 19일에 퇴원을 하였다. 상주로 와서 요양을 하고 6월 9일에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걸어서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입원할 때 20kg이 채 안되었는데 돌아갈 때는 27kg이었다. 호적 경비, 여권 경비, 비행기표, 체재비, 수술비, 총계 1,600만원이 들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성금이 있었다. 감사한 일이다.

생명을 살려 보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캐서린이 입원 중에 기록한 것이 있었다. 두순어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면 성경공부를 많이 하여 훌륭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번에 심장 수술로 다시 산 캐서린.
오른쪽이 그의 부친 Yikun. (Dusun족)

아름다운 교회도 짓겠습니다.” 라고 썼다. 나는 이 기록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 어린것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였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어진다. 캐서린은 살아서 돌아갔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기독공보 2000년 4월 6일자 참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정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내 힘으로 곁을 수 있는 한 매년 겨울에 갈 작정이다. 그동안 가족과 친지들의 헌금으로 선교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연락처

743-920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1033. 전화 054) 532-7186